

“전통놀이·세시풍속...돈독한 가족의 情 나눠요”

등근 보름달이 떠오르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마련된다.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부터 전시, 공연, 영화 등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성찬이 펼쳐진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를 살펴보고 가족과 함께 즐기며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 보자.

ACC 한가위 한마당 '보름달 아시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전통의상을 입고 투호놀이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아시아 전통놀이, 영화, 공연, 연날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아시아 전통의상을 입고 올 경우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입장료를 50% 할인해 준다. 또한 월요일 휴관 없이 22-26일 정상 운영하고, 오는 27일 휴관한다.

ACC는 추석연휴 동안 '보름달 아시아'(Full Moon Asia), '영화더빙쇼-자유결혼', '마나스: 유네스코 등재 인류 최고의 서사시' 및 '#늘ACC' 전시, '시네마테크', '시네마콘서트'를 비롯해 2018 광주비엔날레 전시 등을 선보인다.

먼저 '보름달 아시아'는 ACC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아시아 전통놀이 체험·제작 프로그램, 우리가족 국악 한마당, 퓨전 국악 공연, 평화기원 연 날리기 경연대회, 가족 영화 상영 등으로 이뤄져 있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가위 이야기', 전통놀이의 근원을 알아보고 각자의 소원과 색을 칠해 꾸미는 '소원 팽이 만들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자신만의 연을 만들어보는 '평화기원 연 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작영화·애니메이션 '소원·영화·가족 영화 상영'도 준비돼 있다. 엄선된 명작 영화를 행사 기간 중 1일 2편씩 ACC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 극장에서 상영한다.

영화 외에도 특별공연으로 사회적 기업 '루트머지'의 퓨전 국악 공연이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김서연 스토리텔러와 함께하는 어린이 도서관의 '추석에도 놀러와, 이야기숲으로'도 만날 수 있다. 특히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평화기원 연 날리기 경연대회'가 주목할 만하다. 이 대회는 직접 만든 연을 날리는 행사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전통문화관 '풍류한마당'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조상의 지혜와 멋이 담긴 민속놀이와 세시풍속 체험, 전

한가위 연휴 광주·전남 주요 전통 문화행사



22일 무등산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인 태권 공연.

통예술공연 등을 마련했다.

전통문화관은 이번 연휴기간인 22-26일 휴관 없이 문을 열어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22일과 추석 다음날인 25일에는 다양한 세시풍속·민속놀이 체험과 흥겨운 공연도 마련된다.

오는 22일에는 토요상설공연을 확장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통문화관 솥을대문과 너털마당 일대에서 전통놀이 한마당이 열리고, 오후 3시부터는 너털마당에서 마당창극 '뽕파전'을 선보인다.

전통놀이 한마당은 오전 10시부터 솥을대문 앞에서 투호던지기·널뛰기·제기차기·고리던지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너털마당에서 민속제기 만들기·종이팽이 만들기·소원등 쓰기 등 추석 놀이도구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해오름 놀이·박 터트리기·단심줄 놀이와 같은 공동체 놀이도 선보여 전통문화관을 찾은 광주시민과 외지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가위 특별공연으로 오후 2시30분부터 솥을대문 앞에서 한국 전통 민속놀이이자 무술인 '택견' 시대를 잇다'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3시 너털마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무대 작품도 재미있는 볼거리다. 극단 연우랑(대표 이현기)이 펼치는 마당창극 뽕파전은 뽕덕과 심봉사, 황봉사가 펼치는 오적복

통 신명나는 마당극이다.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일요상설공연은 연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를 위해 25일로 날짜를 옮긴다. 이달의 일요상설공연 '열씨구 한가위로세' 넷째 판은 전통놀이체험과 전라도말로 하는 소리공연 '한가위랑께~'가 진행된다.

오전 11시부터 솥을대문과 너털마당에서 진행되는 전통놀이 체험 '한가위, 놀이를 나눠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흥겹게 놀아요'와 옛 사대부 양반집 아이들과 부녀자들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예를 갖춰 놀아요', 놀이와 풍물로 어울리는 '다함께 놀아요' 등 세 마당으로 구성됐다. 놀이를 통해 역사 속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온 가족 박물관서 즐기는 명절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로폴린의 버블마술 공연 장면.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추석을 맞아 22-26일 '2018 한가위 우리 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연휴기간동안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사방치기, 칠교놀이, 투호, 팽이치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추석 다음날인 25일에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공예(마술&버블쇼)'이 낮 12시와 오후 3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을 위해 전통

놀이 다문화 교육 연구소 '다놀'에서 진행하는 줄넘기 경연대회, 단심줄 놀이 등을 통해 우승팀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교육관 대강당에서는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프로그램을 상영한다. 매일 오후 1시 '드림송', '썸', '한나를 위한 소나타', 오후 3시 '더 콘서트', '카핑 베토벤' 등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추석을 맞이해 오는 25-26일 박물관 일원에서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연휴기간에 박물관을 찾으면 제기차기, 팽이치기, 삼모돌리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과 전래놀이를 배울 수 있다. 국립박물관 휴관일 지정으로 추석 당일인 24일은 하루 휴관한다. 행사 첫날인 25일과 이틀째인 26일에는 박물관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쌍륙·고누놀이 등 전래놀이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이들간 이어지는 행사기간에는 매일 오후 2시에 박물관 중앙홀에서 코믹마임, 벌룬쇼, 버블쇼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코믹마임&벌룬&매직 버블쇼-타이거 집'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추석 당일을 제외한 25-26일 박물관 야외마당에서는 삼모돌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매일 체험해 볼 수 있다.

전남지역 99곳 명절 프로그램 다채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야외마당에서 즐기는 민속놀이.

그런가 하면, 전남지역 99곳에서 송편빚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와 강강술래, 마당극, 율놀이와 떡메치기 등 전통놀이가 진행된다. 먼저 전남농업박물관 야외 초가마당에서는 22일 오색송편 빚기와 널뛰기, 투호던지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오색송편 종류는 흰 송편, 검정 쌀을 배합한 보라색, 모시잎 녹색, 단호박 노란색, 딸기 재료를 넣은 빨간색 송편이다. 천연 색소를 활용해 다양한 색을 담았다.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는 23일부터 3일간 캐리커처 그리기, 엠무세 체험, 우쿨렐레 버스킹 등 '추석맞이 체험 행사'가 열린다. 무안 남소 소재 남도소리유평터에서는 22일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공연으로 강강술래, 호남좌도농악 등을 선보인다. 이날 나주 백민원에서 도립국악단의 찾아가는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유명한 순천에서는 24일부터 25일까지 동천갯벌공연장에서 'fall in 감성' 아카펠라, 아쿠스틱 로이킴 공연 등이 마련된다.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진도에서는 24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한가위 특별공연으로 '윤림산방' 그림으로 그린 숲' 공연이 열린다. 전남지역에서 펼쳐지는 세시풍속놀이와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참조하거나 시군 문화관광부서, 당직실 또는 추석 종합상황실 등에 문의하면 된다.

/정겨울 기자 jwinter@kdaily.com

묘지에 그리운 이를 조각하세요.

가슴깊이 새겨두었던 그 얼굴...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오석액자에 담아보세요.



〈오석의 장점〉

- 1 중량감
- 2 아득함
- 3 불변함

한정특가 판매 계획표(50%세일)
(가로×세로×높이)

- [1호] 100×200×20 | 130,000원 - **특가 65,000원**
- [2호] 200×200×20 | 180,000원 - **특가 90,000원**
- [3호] 300×200×50 | 300,000원 - **특가 150,000원**
- [4호] 400×300×20 | 300,000원 - **특가 150,000원**
- [5호] 500×350×20 | 350,000원 - **특가 175,000원**

*기타사이즈는문의(제작일정증가)

오석의 특성

경도, 강도가 좋은 오석은 화산석, 화강암보다 더 진귀하게 여겨왔고 왕가나, 부호의 대명사였기에 비석, 표석, 초석, 조각석 이외 많은 자재에 고급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 사용처

납골당 수목장 표지석, 인테리어 돌액자, 문패, 준공석, 식수석, 묘지용 와비 등

기존 돌액자
아크릴, 유리 등 다른 물질에 인쇄 후 부착
(오랜시간 햇빛, 바람 등에 노출되면 변질)



아름드리 돌액자
돌 자체에 각인
(아무리 오랜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음)

*오석에 직접 각인하는 작업 특성상 사진과 똑같은 퀄리티는 불가능하니 이점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